

2024년 3월 17일(주일) 제1674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사순절 묵상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6-18)

기도가 먼저라!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6시, 웨스트민스터홀

말씀과 기도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만남의 신앙

3월 25일(월)-30일(토) 새벽 5시, 강사:손달익 위임목사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3월 25일(월)-30일(토)까지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설교는 손달익 위임목사가 담당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聖) 금요일'(3월 29일)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하며 금식하여 부활주일에 금식헌금을 봉헌하며, 이는 연약한 이웃을 위한 구제의 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 8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

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든 다락방이 연합으로 함께 모여 드리며, 그 주간 다락방 모임을 대신합니다.

3월 31일(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새벽 5시 '부활절 새벽예배'가 있으며 시온찬양대가 찬양을, 양정호 협동목사가 설교를 담당합니다.

부활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헌금과 성(聖) 금요일 금식헌금을 드립니다. 부활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가브리엘찬양대의 특별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설교말씀>

요일	25일(월)	26일(화)	27일(수)	28일(목)	29일(금)	30일(토)
제목	죄인을 만나시는 하나님	버려진 자를 만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만나시는 하나님	어둠속의 인생을 만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찾는 사람을 만나시는 주님	무덤 곁에서 만나시는 주님
성경	창 3:9-21	출 3:1-12	레 1:1-9	요 1:1-12	요 19:38-42	요 20:11-18
찬양대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은빛	호산나·시온	베들레헴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자

이관규·이순영(1) 이영옥(1) 박수강(1/2) 윤용선(1/2) 오용이(청소년) 곽선자(청소년)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이영옥(1)

Vision2030 후원자

이관규·이순영(2) 최흥열·오충례(2) 이봉선(1) 이영옥(3) 송정윤(1) 최정순(1) 곽선자(1) 오용이(1)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더 깊은 믿음의 감사

눅 17:11-19



손달익 위임목사

우리는 매일을 불편한 마음과 날 서 있고 거친 마음이 아닌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참으로 필요한 것은 늘 자기를 살피는 성찰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고마움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준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신세를 지고 도움을 입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은 다섯 손가락에도 다 차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혜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을 일삼으면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중간 지역을 지나시던 주님께서 일행들과 함께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한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떨쳐서 서서 '예수 선생님이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자신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사마리아의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더 깊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1. 은혜의 발견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셨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 일행은 모두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이 나병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마을인 것을 아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나병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깊숙한 산촌에 위치해 있어서 좀처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의 마음에 이 마을이 자꾸 생각났고 이곳에서 절망의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가련한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버려지고 소외되고 절망적이고 고통으로 신음하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마을의 열 명의 불행한 인생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오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버려지고 소외되고 절망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십니다.

2. 은혜를 잊지 말라

주님은 은혜를 구하는 열 사람 모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병이 고쳐질 것을 믿고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레 14장)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에서 상처

가 사라지고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병으로 완전히 인생을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무서운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빨리 가서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큰 선물, 치유와 해방을 주신 분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는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은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잊지 않은 그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버려진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도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며 그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자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병 나은 것이 큰 은혜였지만 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신 것에 더 큰 감격을 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이후에는 더욱 겸손히 헌신으로 응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은혜의 나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시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모금하여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후 9:8-9)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심은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눔이란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사랑과 배려 등 나눔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고산 지대에 살면서 원시생활을 고수하는 바벳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전 아프리카에서 범죄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이 부족의 낮은 범죄율은 이들만이 가진 독특한 재판 때문입니다. 어쩌다 실수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마을 한 가운데 세우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은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죄인에게 한 마디씩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게 먹을 것을 구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게 늘 잘 웃어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지난번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끝까지 같이 있어줘서 감사했어요.'
'우리 집에서 일을 도와주실 때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제 실수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에게 감사한 기억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사과하면 이 사람이 새사람 된 것을 선포하고 재판은 종결됩니다.

감사를 나누는 곳에 감동도 있고 변화도 있고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은혜를 가난한 자들에게 배풀면서 나누고 살아가십시오. 더 깊은 믿음의 감사는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롬대학! 싱글벙글~ 살롬대학! 감사감사~



백도환 장로
(살롬대학 부장)

살롬대학! 싱글벙글!
살롬대학! 감사감사!
올해도 어김없이 박미라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강력한 구호로 서울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살롬대학을 3월 7일(목)에 개강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의 변화된 점은 먼저 교사들을 더욱 확충하여 부감 2분을 포함하여 총 12분이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살롬대학 학생 여러분과 교사의 건강을 책임질 양호교사와 각 반의 수업을 도울

보조교사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과목으로는 보드게임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한 교사가 이끄는 보드게임반, 단순한 대국 외에 초보자를 위한 바둑교실, 달밤에 핀 흥매화를 부채에 그릴 미술반, 부채춤을 연습 중인 위생체조반, 꼼꼼하고 자상한 지도도로 한 학기에 최소 한 작품을 완성시키는 손뜨개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탁구반 등으로 어르신분들의 정신건강 및 집중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년간 봉사해 오신 강사들이 축적된 경험

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식사 후에는 은퇴권사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어 다시 웨민홀로 내려가셔서 4대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더욱 풍성한 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행사로 4월 25일(목) 8주차 때에는 축령산 예그린산장으로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산나대학 2024학년도 입학식 개최



호산나대학 제19회 입학식이 3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본 대학 대강당에서 신·편입생 23명을 비롯한 재학생 및 학부모, 관련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입학식 1부는 입학 예배를 시작으로 (사)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이사장 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손달익 위임목사님의 설교 '우리의 목자 예수님'과 축도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입학허가 선언, 입학선서, 축사, 격려사, 장학금 수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요 내빈으로는 서울교회 손

달익 위임목사 외 장로님, 국제라이온스협회(354-A지구) 박광범 총재 외 부총재, ㈜프로투게더 장공진 대표 등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호산나대학 서울교회 법인 장학금, 국제라이온스협회(354-A지구) 장학금, ㈜프로투게더 장학금, 부모회 장학금, 성적우수상 등 신입생과 재학생 25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354-A지구) 박광범 총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장학금은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고 능력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배움을 통해 직업을 가지고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산나대학 이동귀 학장은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떨쳐버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사회로, 사회인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신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정신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거룩한 헌금으로 2006년에 개교한 호산나대학은 졸업생들의 취업률 증가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컴퓨터 활용, 바리스타, 애견훈련사 및 애견미용사 등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현장에서 고용주가 만족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서울교회!

교회를 위한 기도회

권사회(회장:최종희 권사)는 권사회 주관으로 매 주일 오후 1시 15분부터 1시 45분까지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갖습니다.

김익환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며 교회를 위해 기도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성경 릴레이 필사

리브가전도회(회장:남태영 권사)에서는 교육부 주관으로 성경 릴레이 필사를 합니다. 범위는 바울서신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장 혹은 두 장을 필사하여 사진으로 단체방에 올리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울서신은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모두 87장이며 바울서신이 잘 마무리되면 후반기에는 공동서신을 필사해 올해 사복음서를 제외한 신약을 필사할 계획입니다.

-스데반회 특강- 돌봄의 리더십

3월 23일(토) 오후 2시

스데반회(회장:임우택 안수집사)는 3월 23일(토)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스데반회 치유 상담 특강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돌봄의 리더십'으로 강사는 오원웅 목사(마음공장심리코칭연구원 원장, 비영리단체 Ground Circle 대표)입니다.

관심있는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새로운 전교인 성경읽기, 맥체인 성경읽기표

2024년을 시작하며 교회는 전교인 성경읽기를 맥체인 성경읽기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맥체인 성경읽기표란?

맥체인 성경읽기표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 로버트 맥체인(1813년 5월 21일 - 1843년 3월 25일)이 1842년 12월 30일 자신이 시무하던 성베드로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읽기표를 소개한 것이 유래입니다. 그는 비록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틀를 비롯한 신학자들도 사용하는 성경읽기표입니다. 맥체인 성경읽기표는 각각 구약, 신약성경을 1장씩 할당하여 총 매일 네 장을 읽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 맥체인 성경읽기표의 장점

1. 성경 전체는 1년 동안 규칙적으로 통독할 수 있다. 구약은 1번, 신약과 시편은 2번 통독할 수 있다.
2. 어느 부분을 읽을지 고르는데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다.
3. 가정 예배를 일반적으로 드리는 방식보다 더 은혜롭게 드리기 좋다.
4.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에게 더 알맞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새해 첫 날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4가지의 시초, 창세기 1장, 에스라 1장,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으로 시작됩니다. 즉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시작',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시작', 신약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4가지의 구속사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읽게 됨으로써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구속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읽기표의 특징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동시에 읽기 때문에 말씀 연결이 하나로 흐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존 스토틀 목사는

특별히 맥체인 성경읽기표를 활용하였을 때 기복이 심한 성경의 전체를 개관하면서 동시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말씀을 연결하는 것은 성경 내적으로도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27과 요한복음 5:46에서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본인에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성경읽기표의 경우에는 구약이 끝난 다음에 신약을 읽기 때문에 구속사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쉽지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연결하여 깊이 있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데 약점을 보입니다. 맥체인 성경읽기표는 본인이 임의적으로 4개의 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흐르는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연결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성경의 진리대로 사 고하도록 지각을 훈련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외형적인 속도보다는 '균형있는 성숙'에 걸맞는 성경읽기 방식입니다. 말씀 연결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맥체인 성경읽기표 2월 14일이라 가정할 때 창세기 47장, 누가복음 1:1-38절, 욥기 13장, 고린도전서 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로 기근을 대비하는 요셉의 모습, 누가복음 1:1-38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에서 사가랴와 마리아의 대조가, 욥기 13장은 지혜의 판별자이신 하나님께 탄원하는 욥, 고린도전서 1장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주제로 된 깊이 있는 읽기를 하였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여 실천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성경읽기를 시작하지 못하신 성도들이 계신다면 이 맥체인 성경읽기표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원웅 목사

-강사 약력-

오원웅 목사(상담학 박사PH.D)

마음공장심리코칭연구원 원장

비영리단체 Ground Circle 대표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 겸임교수

송실대학교 대학원 프로젝트경영학과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복지경영학과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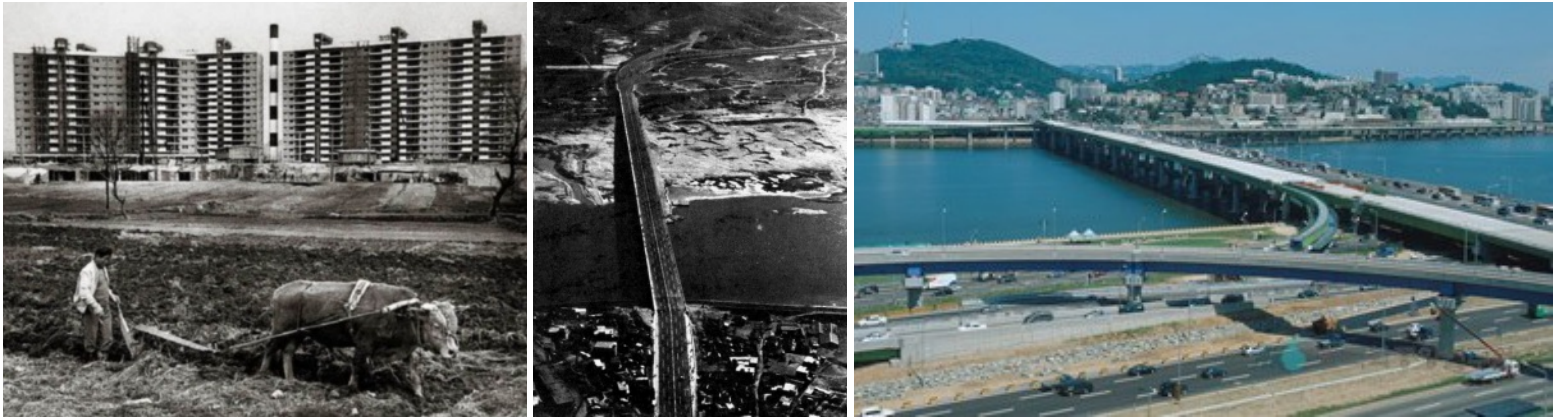
전교인 부활절 달걀 신청

오는 부활주일(3월 31일) 전교인 부활절 달걀은 이순례 은퇴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부활절 달걀이 필요한 교육 부서는 오윤걸 장로(교육위원장)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개발과 대형교회의 성장, 그리고 교회의 중산층화



강남개발(왼쪽)과 제3한강교 건설

1982년 2월 17일 「동아일보」에 “서울 강남구는 교회구, 강북교회 너도나도 건너와 신축”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1970년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교회 건축 붐이 일어 대형교회가 속속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다. 1978년 강남구청이 생길 때 이미 42개소의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었고 1981년 한 해만 백여 곳이 늘어났는데 강남구 전체를 합치면 2백 개가 넘는 교회가 강남구에 몰려있었다. 기사는 말미에 강남으로 대형교회가 이주해 오는 이유로 ① 신축할 수 있는 대지가 많아 구입이 쉽고, ② 강북보다 건축허가를 내기 쉽고, ③ 고급아파트와 주택가가 많아 교인 확보가 쉽다는 점을 꼽았다. 기사가 나온 1982년 당시 백억 원의 건축비로 교회 신축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 16일에는 「경향신문」이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전호진 박사가 수행한 강남구 교회 성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사화했다. “서울 강남구에 대형교회 난립, 부작용도 많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강남구에 297개의 교회가 몰려 있는데 1981년 교회 성장률은 평균 56.7%, 헌금 증액률은 15%라고 소개하였다. 하지만 과다경쟁과 막무가내식의 개척으로 몇 년 만에 문을 닫는 교회가 비교적 많고 교인수가 4-5명인 교회도 눈에 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대형교회가 난립하면서 교회가 부유층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호진 박사는 강남지역의 교회가 외형 성장에서 벗어나 내적 성장을 이룩해 종교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의 개발은 1969년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의 건설과 1970년 제3한강교 남단에서 양재동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의 완공으로 본격화되었다. 1970년 11월 서울시는 남서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강남에 60만 명을 수용하는 신시가지 건설하고, 국영기업과 정부기관을 이전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이상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1975년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영동대교,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2·3호선, 6차선 도로 등의 건설, 그리고 대법원과 이른바 명문고등학교 이전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70년 136만 명 가량이었던 한강 이남의 인구는 1985년 440만 명을 넘어 전체 서울 인구의 4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강남은 1973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각종 세금 면제, 건축자금의 저리 융자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었고 명문고등학교들이 차례로 이전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다. 당연히 일정 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인구가 급속히 강남으로 몰려들었다. 대형교회의 강남 이전도 이런 사회적 조건에 따른 것이었다. 많은 교회들이 강남지역의 인구 증가의 혜택을 자연스럽게 받았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로버트 슈러(Robert Harold Schuller) 목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긍정적(적극적) 사고방식, 번영신학 등 중산층의 가치체계에 적합한 설교와 교회운영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성장하였다.

그러나 대형교회의 강남 이전과 성장은 언론의 금지 못한 시선을 받았다. 경쟁하듯 건축된 대형교회는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그런 돈이 있으면 가난한 이들을 돕거나 힘들어하는 미자립교회를 도울 것이지 자기 교회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는 오해와 편견에 입각한 이야기도 나왔다. 「동아일보」에 글을 기고한 한 시민은 “종교가 이기주의와 영합할 때 그보다 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며 글을 마쳤는데, 그의 비판이 옳은가는 미뤄두고 생각하더라도 당시 교회에 대한 일부 시민사회와 언론의 여론이 좋지 않았음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강남교회의 성장은 곧 한국교회의 중산층화로 보였다. 이런 교회의 중산층화는 사회학 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이 될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1994년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50대 교회 중 23개의 교회가

한국, 그 중 13개가 서울, 그리고 그 중 6개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현대적인 교회 건물, 넓은 주차장을 가득 메운 자가용, 교향악단 수준의 찬양대, 목회자의 지적인 설교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교회가 문화적·지적 ‘수준’을 중시한다는 이야기였다. 한국교회가 전형적인 중산층 교회라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2014년에는 감리회의 기관지인 「기독교세계」가 감리교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리교회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전형적인 중산층 교회”였다.

강남지역의 교회들은 이후 신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의 교회개척과 선교의 모델로 적용되어 한국교회 전체 성장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고 모든 면에서 도시 중산층들을 품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회의 중산층화라는 말은 교회에 품격이 생겼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 품격은 꼭 필요한 미덕이다. 그러나 지나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교회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이 지적은 교회가 중산층의 사교모임이 되면 가난한 이들을 쫓아내진 않지만 가난한 이들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공동체, 웰빙과 소비주의를 추구하는 단일한 공동체가 된다는 우려를 포함한다.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돕기는 하지만 함께 살기는 꺼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기가 눈치 보이는 신자가 생긴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삶을 실천하는 복음의 원형을 지키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인식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진정한 공동체일 때 가장 선교적이며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강력할 수 있다.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의 특혜를 누리는 지역의 교회는 그 특혜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결심하고 실천해야 함을 선교적 소명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지난 주간 교회 종탑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강전 은퇴안수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박지연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식사 제공



- 4교구
백영자 은퇴권사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70인전도대 3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3.3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3.6	도르가, 루디아, 뵤비
3.10	자원자	바울, 엘리야	3.13	마리아
3.17	자원자	모세	3.20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3.24	자원자	이삭	3.27	리브가
3.31	자원자	스데반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3월18일	월	수 15-17
3월19일	화	수 18-19
3월20일	수	수 20-21
3월21일	목	수 22-24
3월22일	금	삿 1-3
3월23일	토	삿 4-6
3월24일	주일	삿 7-9

이름:

맥체인 성경통독			
출29	요8	잠5	갈4
출30	요9	잠6	갈5
출31	요10	잠7	갈6
출32	요11	잠8	엡1
출33	요12	잠9	엡2
출34	요13	잠10	엡3
출35	요14	잠11	엡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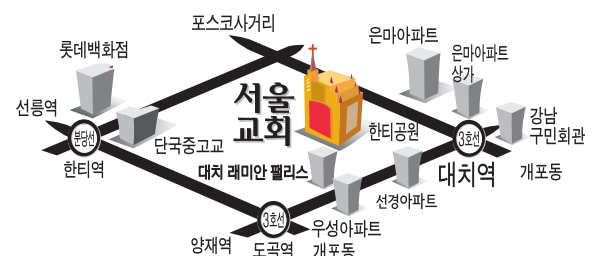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사순절 다섯째 주간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 제4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를 돌보아 주소서.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재보궐선거 과정에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구원과 치유의 은혜가 전세계 모든 곳에 전해지게 하소서.